



차 올리고 조상 은덕 기리세요



선산 유씨 문절공 유희춘 종가에서는 시제 순서에 기록된 철강봉다(鐵鋼捧茶)의 순서대로 국을 내리고 차를 올린다.

해마다 설, 추석이면 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차례(茶禮)를 지낸다. 그러나 차례상에 오르는 음식 중에 정작 차는 빠져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 예서인 <가례집람>에는 설, 추석 차례상에 술 한 잔과 차 한 잔, 과일 한 접시를 올리는 그림이 남아 있는데, 지금의

올리는 종가의 제례 풍경을 담아냈다. "그동안 많은 종가를 찾아다녔지만 차를 올리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가례>를 지었던 신안 주씨 주희(朱熙, 1130~1200)의 한국 후손이 설 차례는 물론 추석과 기제사에까지 차를 올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야 '차례'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당장 올진에 있는 경안 종가를 찾아 제례 모습을 확인했죠."

5년간 종가 55곳 제례 풍경 담아 신안 주씨, 선산 유씨 등 맥 이어

차례상에서는 왜 차가 사라진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종가를 찾아 나선 우리차문화원 이연자(60·사진) 원장. 지난 1999년부터 5년 동안 55여 종가를 찾은 그는 최근 펴낸 <명문종가 이야기>에서 차를

올리는 종가의 제례 풍경을 담아냈다. "그동안 많은 종가를 찾아다녔지만 차를 올리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가례>를 지었던 신안 주씨 주희(朱熙, 1130~1200)의 한국 후손이 설 차례는 물론 추석과 기제사에까지 차를 올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야 '차례'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당장 올진에 있는 경안 종가를 찾아 제례 모습을 확인했죠."

를 올렸던 것은 아니다. 2년 전 이 원장이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만 해도 제례에 차대신 송송이 올려졌다. 조선 말 잦은 변란으로 차를 구하기 어려워 차 대신 물을 올린 것이 선례가 되어 그렇게 전해 왔으나, 요즘은 차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문중 회의를 거쳐 차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아니다. 조선 중기 <미암일기>(보물 260호)를 쓴 유희춘(柳希春, 1513~1577) 종

가는 몇 달 또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원장은 종가의 차례상에 차를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도 이를 실천해 볼 것을 권한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밥과 국을 올린 후 송송이나 물을 올리는 대신에 차 한 잔을 올리면 되기 때문이다. "연간 차 생산량이 1천톤에 달하는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상의 차례

헌다면 음식줄고 다함께 음복 가능 차의 정체성 확인 차원에서 바람직

가도 가을 시제(時祭)에 차를 올리고 있었다. 그동안 끊어졌던 한차례의 맥을 잇게 된 것은 유원적 총회장의 권유 덕분이었다. 담양 지역은 차가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고 <미암일기>에는 부인과 함께 차를 즐겼다는 기록을 들어 문중이든들을 설득시킨 것이다. "수대에 걸쳐 내려오던 종가의 제례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를 올리지 않는 종가의 어른들께 차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사 순서를 적은 율기(律記)에 '국을 내리고 차를 올리라'는 '진다(進茶)', '헌다(獻茶)'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문중 회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차를 올리기가

상에 차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차를 올리게 되면 적(炙)과 전(煎) 등의 술안주를 적게 장만해도 되고 아이들과 함께 음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에 따른다는 것 외에 차를 올리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차 문화는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의례물의 성격이 강합니다. 차례에 차를 올림으로써 우리 차의 정신과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지요. 설, 추석 때 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정성껏 차를 우려 조상에 올림으로써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제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정성껏 우려 제상에 올린 차는 제사가 끝난 후 노중부와 차종부가 음복한다. 제사순서를 적어놓은 율기에 올린다. 점다의 순서가 적혀 있다.(사진 왼쪽부터)

중국, 대만차 배우러 오세요 3월29일까지, 인사아트센터

3월 25일	15:00 중국정관다연(中國淸官茶宴) 17:00 반종성 들조각 작품전
3월 26일	15:00 보이차의 품격연구 17:00 차 안의 즐거움
3월 27일	15:00 대만 고산차 17:00 찻자리 꽃의 아름다움
3월 28일	15:00 대만 목책 철관음의 멋 17:00 차화(茶畵)의 정취
3월 29일	15:00 차와 음악과의 대화 17:00 오늘날의 대만다예

보이차, 고산차, 철관음... 최근 중국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차들이 수입되어 차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막상 중국차의 종류와 음다(吟茶)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중국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사동 일광정사대표 여규영(여규영)가 준비한 '차와 좋은 만남 전'을 찾아보자.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중국 다구 전시를 비롯해 매일 오후 3

시와 5시에 열리는 '보이차의 품격 연구', '대만 고산차', '찻자리 꽃의 아름다움', '차와 음악과의 대화' 등의 주제 강연으로 이루어진다. 여규영(47) 대표는 "90년대 말 이후 중국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지만 정작 중국차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차인들이 다양한 차문화에 접해볼 수 있도록 좋은 차를 선별해 바르게 마실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한다. 강의는 대만과 홍콩, 말레이시아의 차 전문가 10여 명이 방한해 진

행할 예정이다. 강의 참가비 1만원을 내면 찻잔을 나누어 준다.(02)733-2325

석정원 생활차 수강생 모집

석정원(원장 선혜)은 5개월 과정의 생활차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수요일 오후 7시에 2시간 씩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생활차례와 전통차례일기, 차의 전래와 역사, 차의 종류와 이름 등을 배울 수 있다.(02)732-2068

차문화 교육현장

목포대·대경대

차학과 신설은 시대적 흐름

'차문화 교육현장' 코너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전국 대학에 개설된 차 관련학과들을 소개했다. 1월 7일 소개된 원광디지털대학 차문화경영학과를 시작으로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 부산여대 차문화복지학과, 성균관대 예절다도학과, 한서대 차학전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차 문화를 알리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현장 5 곳을 탐방해 보았다.



대경대 다도 동아리 모임.

이번 호는 그 마지막 편으로 최근 문예 연 목포대학교와 다도학과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경대학교를 살펴본다. 국립대학으로는 처음 차 관련 학과를 개설한 목포대(총장 김웅배)는 올해 일반대학원 내에 '국제차문화학과'를 개설하고 6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국제차문화학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수진 역시 나송만(고전문화), 조기정(중국 언어학), 신인섭(일본학 비평이론), 박용서(식품의 기능성 물질) 교수 등 세계 차 문화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다양한 교양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꾸려졌다.

교과목으로는 중앙 3국과 유럽의 시대별 차 문화를 살피고 차문화가 인간의 정신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국제차문화연구'를 비롯해 차문화 고전을 강독하는 '차고전전문연구', 문헌에 나타난 다례법과 그 의미를 살피는 '다례연구론', 현대 차생활에 적합한 차도구를 연구하는 '차도구 연구', 커피와 코코아 등 대용차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차의 비교우위를 검증하는 '기호 음료학' 등이 개설돼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민속문화의 다

양한 갈래들을 문화자원의 구도 속에서 살피는 '한국의 민속문화'와 다양한 차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중국의 차문화 자료를 읽고 수집할 수 있는 '인터넷 중국문화기행', 우리나라 작품재배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살피는 '재배학원론', 미생물의 발효현상을 통한 식품 생산기술을 배우는 '발효공학' 등도 보충지

정 과목으로 마련된다. 국제차문화학과장 정순택 교수는 "세계 차문화와 차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차문화학과 개설은 필연적이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차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으로 갖추고 세계 차문화 시장에서 우리 차산업 발전의 중추적 인재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한다.

경북 경산에 자리 잡은 대경대학(총장 이종득)은 그동안 대학 내 다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 차원에

서 다실을 마련하는 등 차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올해 3월에는 100여 평 규모의 다실을 열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컴퓨터 자다도교육의 장으로 꾸려갈 예정이다. 또한

목포대 '국제차문화학과' 눈길 차 비교 검증과 등 개설 대경대 100여평의 다실 열고 학생들 대상 교육 계획

다. 또한 차문화추진을 마련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도교육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철옹 스님을 통해 차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유진선 대경대학원장은 "앞으로 중국 북경대와 교류를 통해 차 전문가를 초빙, 차학(茶學)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조만간 다도학과를 개설해 전문 차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제1회 보현학술상

(사)한국불교연구원 보현장학회에서는 젊고 참신한 젊은 불교학자를 선정, 그들의 연구의욕을 고무시키고 격려할 목적으로 보현학술상을 제정, 매년 시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응모자격

- ① 대학원 박사과정수로 이상의 불교학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신진불교학자
- ② 최근 5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관련 연구 전반) 관계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자

■ 시상규모 : 500만원(1인)

■ 후보자 제출서류(자료는 한글화일 형태로 첨부해야 함)

- 가. 이력서(사진 첨부)
- 나. 연구 활동 내역서(관련자료 첨부)
- 다. 경력증명서
- 라. 학력증명서
- 마. 추천서(지도교수)

■ 접수마감 : 2004년 3월 20일까지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심사 : 보현학술상 심사위원회

■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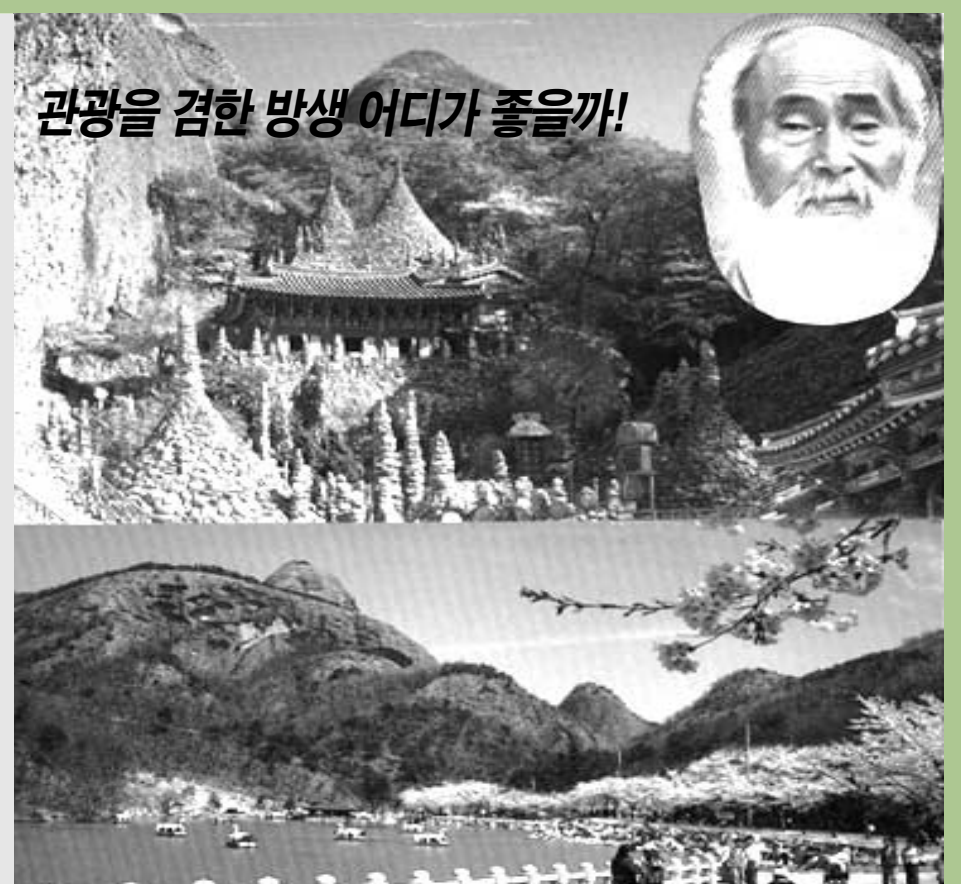
■ 접수처 및 문의 : 보현학술상 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 02)3411-6167 ~ 8 / FAX. 3411-6169

(사) 한국불교연구원 보현장학회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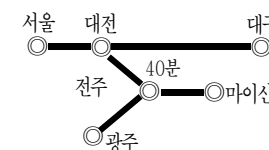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